# ‘절오빠’ 들이여, 더 이상 부끄러워 말라

## ‘절오빠절언니’ 2주년… 성장 동력은?

불과 몇 년 전이다.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‘절집오빠’와 ‘절집언니’라는 표현이 우스갯소리로만 쓰였던 그때. 단순히 ‘교회오빠’라는 상징적 이미지에 반발해 ‘절오빠’를 부르짖어도 도통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. 물론 소수지만 절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었음에도 당당하게 ‘절집오빠’ ‘절집언니’라고 밝히지 못한 것은 그 희소성에 여간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 ‘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종교’라는 불교에 대한 꼬리표는 청년 불자들의 자신감을 옭아매는 멍에와 같았다.

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요즘, 절집오빠 · 언니에 대한 인식은 한결 부드러워졌다. ‘편한 불교’ ‘쉬운 불교’를 모토로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만의 장이 마련되면서 각지에 은둔하며 지내던 청년 불자들이 하나둘 양지로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교청년허브를 표방하는 모임 ‘절오빠절언니’가 있다.

지난 3월 12일, 서울 홍대 라실리아에서 절오빠절언니의 2주년 축하파티가 열렸다. 이날 모임에는 30여 명에 달하는 청년불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다. 인터넷포털 카페 회원은 어느새 120명을 훌쩍 넘겼다. 무엇이 청년불자들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. 운영진인 강민지 씨는 가장 큰 이유로 ‘청년 불자들의 욕구’를 꼽았다.

강 씨는 “우선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. 절오빠절언니라는 허브가 교량역할을 한 것”이라며 “꾸준한 홍보, 모임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 또한 크게 작용했다.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은 저절로 모인다는 생각이 잘 맞아 떨어졌다”고 설명했다.

**청년 불자들 욕구에 귀 기울여**
**가벼운 주제로 관심 끌어내**
**청년 위한 소통의 場 ‘인기’**
**불교 대중화가 궁극적 목표**

절오빠절언니는 그동안 인터넷방송과 SNS 등을 통해 꾸준하게 청년 불자들과 소통해왔다. 그래서 주제 역시 무겁고 복잡한 것보다는 불자로서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. 올해에는 새로운 기획으로 꾸민 템플스테이와 멘토링 프로그램, 타 단체와의 협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. 또 4월 3일에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남녀사찰음식 쿠킹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이다. 더불어 회원 누구나 기획자가 될 수 있게 아이디어 소통 창구를 열어놓았다. 이 같이 꾸준한 변화로 성장하고 있는 절오빠절언니지만 여기에도 고충은 있다. 바로 재원 마련이다.

3월 12일 홍대 라실리아에서 열린 ‘절오빠절언니’ 2주년 축하파티에는 30여 명의 청년불자들이 참여했다.

강 씨는 “운영진과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을 하지만 영향력을 더 키우려면 일정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수익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운영진 역시 사회생활이 바빠 쉽지 않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절오빠절언니가 원하는 역할은 호텔의 로비와 같다. 여기에는 자생하는 공부 · 수행모임도 있고, 지역사찰 청년회에 가입을 추천하기도 한다. 그래서 ‘우리 회원’ 개념보다 절오빠절언니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”면서 “불교의 대중화, 즉 세상을 불교적이고 인간적인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궁극적인 목표”라고 강조했다.

24개월,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다. 그리고 달려갈 방향은 무궁무진하다. 그렇기에 청년불자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된다. 절오빠절언니 블로그 http://templebrothersister.com

윤호섭 기자 sonic027@hyunbul.com

# “法의 수레바퀴 굴려 불국토 건설하자”

## 포교사단 출범 16주년 기념법회

조계종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이 지역단별 단기를 전달하고 있다.

전국 각지의 포교현장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들의 공로를 치하하고, 더욱 넓은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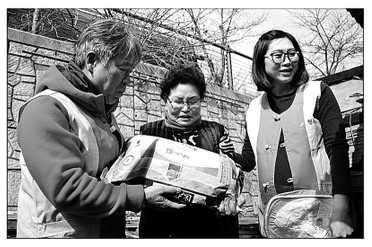
조계종포교사단(단장 윤기중)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‘제3회 포교사의 날 및 출범 16주년 기념법회’를 봉행했다. 행사에는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을 비롯해 전국 포교사 지역단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.

이 자리에서 윤기중 단장은 기념사를 통해 “그동안 활동조직과 포교인력 확충, 포교회관 마련 등 외적 성장을 이뤘다. 이제는 포교활동 내실화를 위해 포교사의 사명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자세로 전법활동에 힘써야 할 때”라며 “젊은 세대의 종교 무관심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. 이럴 때일수록 포교사들이 더욱 본분에 충실하고 종단외호와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해 불자들로부터 인정받는 포교사가 되자”고 강조했다.

이후 전법활동과 사회봉사로 모범이 된 포교사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. 시상식에서는 부산지역단 최덕수 포교사를 비롯한 37명과 서울지역단 서부 군1팀을 비롯한 34개 팀이 총무원장 · 포교원장상 등을 수상했다. 윤호섭 기자

# 달동네에 번지는 우리네 웃음소리

## 행복바라미, 문화대축전 앞서 백사마을서 봉사


엄홍길 대장(왼쪽)이 백사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쌀을 전달하고 있다.

오는 4월 13~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앞두고 (사)날마다좋은날 임직원과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.

날마다좋은날(이사장 이기흥)은 3월 1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2016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. 봉사활동에는 행복바라미 홍보대사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최현주 · 볼링 금메달리스트 손연희 선수가 참여했다.

이날 봉사에서 이기흥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홍보대사들은 직접 백사마을 가정을 방문해 쌀과 모자를 전달했다. 이들이 백사마을에 전달한 쌀은 10kg 120포. 양 어깨에 쌀 포대를 짊어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닌 홍보대사들은 “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. 행복바라미를 통해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”고 입을 모아 말했다. 이에 물품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“정말 고맙다”며 행복바라미 측에 감사의 인사를 했다.

윤호섭 기자

# 참선으로 나를 달래자

## 미황사, 7박8일 템플스테이

꽃샘추위마저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요즘, 내 안의 화를 내려놓고 희망을 찾는 템플스테이가 열린다.

해남 미황사(주지 금강)는 3월부터 매월 ‘땅끝부터 찾아오는 희망의 봄’이라는 주제로 7박8일 템플스테이 ‘참사랑의 향기’를 실시한다.

일정은 4월 9~16일(94회), 5월 21~28(95회)일 등이다. 20~65세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공양비는 50만원이다. ‘참사람의 향기’는 7박8일 참선수행 프로그램으로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. 뿐만 아니라 다도 · 묵언 · 오후불식 · 법문 · 수행문답 등 체계적인 일정을 통한 참선공부가 진행된다.

미황사는 이외에도 4월 2~3일 진행되는 ‘봄맞이 템플스테이’ 참가자를 모집한다. 화전놀이와 봄나물 뜯기 등이 진행되며 청소년과 성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. 윤호섭 기자

# 봉은사, 불교대학원 등 신설… 봄맞이 ‘한창’

## 3월 11일, 모집정원 초과 100명 이상 신청 성황

올해 첫 신설된 봉은사 불교대학원 입학식에는 당초 모집정원보다 많은 신도들이 접수하며 성황을 이뤘다. 불교대학원은 봉은사가 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 보다 전문 · 심화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새롭게 마련한 전문교육과정이다.

서울 강남 봉은사(주지 원명)는 3월 11일 보우당에서 ‘제9기 봉은불교대학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’을 진행했다. 총 신청인원은 104명(불교학 53명 · 선학 51명)으로, 이는 기존 모집정원인 80명(각 학과별 40명)을 초과한 수치다.

봉은사가 불교대학원을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불교대학을 졸업한 수강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불교교육을 실시하고자 기존 ‘봉은아카데미’를 확대 · 개편했다.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며, 수강생들은 출석일수의 80% 이상 강의에 참석할 경우 수료할 수 있다.

이날 입학식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“기초학당과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불교대학원이란 마지막 과정에 임하는 여러분은 불자로서 큰 산에 오른 것”이라며 “부처님 공부는 처음과 끝이 없다.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또한 원명 스님은 선학과를 별도 신설한 것에 대해서 “봉은사는 역사적으로 선종의 대 본산이었다. 선학의 가치를 드높이고 널리 선양하는데 여러분이 앞장서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한편 같은 날 봉은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‘2016 봉은사연화합창단’ 발대식도 거행했다. 봉은사연화합창단에는 약 120명 어르신들이 함께한다.

봉은사는 기존에 청년부 및 어린이부 합창단을 운영해 왔으나, 어르신들만으로 합창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봉은사 측은 “기도와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행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며 “특히 음악은 모든 연령대가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화합창단을 구성하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

서울 강남 봉은사(주지 원명)는 3월 11일 보우당에서 ‘제9기 봉은불교대학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’을 진행했다.

봉은사연화합창단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찬불음악 합창연습을 실시, 향후 사중 행사 · 법회 등에서 음성포교에 앞장설 예정이다. 박아름 기자

# 따스한 봄엔 찬불가로 佛心 다져요

## 불레협 등 찬불가 대회

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찬불가로 불심을 다지는 잔치가 열린다.

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4월 1일까지 ‘제28회 어린이 · 청소년 연꽃노래잔치’ 참가자를 접수한다. 예선은 9일, 본선은 23일 각각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.

참가대상은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만 4세~16세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. 참가부문은 독창 · 중창 · 합창이며, 대상 1팀을 비롯해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등 각 부문별 시상이 이뤄진다.

좋은벗풍경소리는 4월 15일까지 ‘2016 부처님오신날 기념 붓다콘서트 찬불가 열창대회’ 참가자를 접수한다. 예선은 4월 24일 오후 2시, 본선은 5월 19일 오후 7시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. (02)723-9836 윤호섭 기자


# 전국 지사 모집

● 15년의 노력을 통하여 탄생된 운명상담! 간단히 입력을 마치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!
● 학생들에겐 학과선택. 효율적 학습법. 좌,우뇌발달. 진학년도 성적여부. 학교예측. 부와 명예 중 발달 분야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. 언제 재물 또는 목적실현이 잘 될까 그래프를 보며 상담이 진행된다.
( 학생 3,500명. 성인 2,500명 대상, 연구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)

**지사 운영 대상**
종교인(스님). 교육분야. 상담심리사.
철학인. 직업상담사
직업이 필요한 분을 위한 프로그램!
다문화 가족 (한국어 능통자 환영)
● 학생용 (남.여) ● 성인용 (남.여)
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**✪ 강의 안내 : 매주 화 · 목요일 명리학 강의**

**비 전**
● 입력 즉시 인생 전반에 걸친 자료 나온다.
부모관계. 배우자관계. 자식관계. 형제관계를 한눈에 보고 판단해준다.
●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직업을 갖어야 좋은가를 알려준다.
● 언제 형편이 좋아지고 언제 흉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.
※ 궁금하신 분은 연구실에 방문하여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
※ 주민번호에 숨겨진 나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 오픈 예정

**프로그램 유형**

| 생년월일 입력 | | 설문응답 | | 설문응답(재학생) | | 숫자에 얽힌 운세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[고객 기초 정보 입력] | | 기초 정보 입력 | | 기초 정보 입력 | | 기초 정보 입력 | |
| 종 류 | 학생( ) 성인( ) | 종 류 | 학생( ) 성인( ) | 종 류 | 학생( ) 성인( ) | 종 류 | 학생( ) 성인( ) |
| 이 름 | | 이 름 | | 이 름 | | 이 름 | |
| 성 별 | 남( ) 여( ) | 성 별 | 남( ) 여( ) | 성 별 | 남( ) 여( ) | 성 별 | 남( ) 여( ) |
| 생년월일 | 년 월 일 시 | 연락처 | | 연락처 | | 연락처 | |
| 윤달여부 | 네( ) 아니오( ) | 이메일 | | 이메일 | | 이메일 | |
| 쌍 둥 이 | 네( ) 아니오( ) | 안 내 | 다 음<br>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. 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. | ㈎ 귀하가 전공하는 과목은<br>계열 : 학과 :<br>㈏ 현재의 과정은 어디에 해당<br>4년제( ) 전문대( ) 기타( )<br>㈐ 재학중인 학교명 첫자는?<br>( ) | | 선 택 숫 자 | 다음의 숫자 중 선택하고 싶은 숫자에 클릭하셔요<br>1( ) 2( ) 3( ) 4( )<br>5( ) 6( ) 7( ) 8( )<br>9( ) 10( ) |
| 핸폰번호 | | | | | | | |
| 이메일 | | | | | | | |
| 내신등급 | | | | 다 음<br>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하셔요.<br>체크가 끝나면 바로 자료가 출력됩니다. | | 다 음<br>검사하기 | |
| 검사하기<br>평생운( ) 1년 신수( ) | | | | | | | |

※ 생년월일 입력시 16장 출력 ※ 1년 신수 5장 출력 ※ 설문응답 15장 출력 ※ 숫자에 얽힌 운세 5장 출력 ※ 주민번호에 의한 후천직업 5장 출력

**진로적성힐링 상 담 소**
오시는 길 : 총신대(4.7호선) 5번 출구 → 200m 401호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
문 의 : H·P 010-5418-5972



대한불교 원효종

# 중앙 종회의원 당선자 확정 공고

**당선자 명단**

▶ 울산교구 : 청암스님
▶ 충남 대전 교구 : 일륜스님. 자성스님
▶ 전남 광주 교구 : 마명스님. 수월스님
▶ 경북북부 교구 : 성죽스님
▶ 제주교구 : 향봉스님
▶ 전북교구 : 무공스님

2016년 3월 10일부로 대한불교원효종
중앙종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14일

대한불교원효종 선거관리위원장 석 불
선거관리위원 : 정운. 현수. 무공. 혜진

● 총무원 : 경북 경주시 충현로 3길 4-1
전화 054)743-0700 / FAX 054)741-9002